

청정바다·난대숲 따라 완도 남파랑길 걸어요

완도 한 바퀴 86·87·88 코스 인기
장보고 기상 느끼고 완도타워 조망
노르딕워킹·해초 비누 만들기 체험
스마트폰 완주 인증 특산품 증정

“코리아 둘레길 86, 87, 88코스 걷고 완도 특산품도 받으세요!”

우리나라 동서남북을 잇는 둘레길의 남해안 구간인 ‘남파랑길’의 90개 코스 중 완도를 한 바퀴 도는 86·87·88 코스(총 57.8km)가 관광객을 불러모으고 있다.

완도 남파랑길은 청정바다, 난대 숲 등 아름다운 풍경을 만끽하며 걷고 체험 프로그램도 즐길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다.

남파랑길 86코스는 옛 남창교부터 작은 포구와 형형색색 지붕이 인상적인 완도 동부 어촌 마을과 장보고 대사의 기상을 느낄 수 있는 장도 청해진 유적지, 장보고 기념관, 장보고 공원을 거쳐 완도 해조류센터에서 끝난다.

완도 남파랑길 3개 코스 중 최장 거리로 8시간 정도 걸리지만 대부분 평지라 걷기 어렵지 않다.

완도 해조류센터에서 시작하는 남파랑길 87코스는 완도 해변공원, 다도해 일출 공원, 완도타워, 정도리 구계등을 지나 화흥초등학교에서 코스가 끝나며 6시간 정도 소요된다.

완도타워에 오르면서 트인 바다를 한 눈에 조망할 수 있으며, 정도리 구계등은 크고 작은 돌에 파도가 부딪혀 나는 소리가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남파랑길 88코스는 화흥초등학교에서 시작하여 화흥리 마을-상왕봉-완도수목원-신학리 남파랑쉼터-원동리, 중간에 상왕봉을 등산하는 8시간 소요 코스이다.

약 4km 넘는 완만한 임도를 지나 삼밭재에서 730m 정도 오르면 상왕봉(해발 644m)에 도착하는데, 파란 바다와 섬이 만든 다도해의 비경을 볼 수 있다.

완도수목원으로 하산하여 드넓은 숲길을 따라 걷다보면 남파랑 쉼터가 자리한 신학리 농어촌체험 휴양마을에 이르며, 휴양마을에서는 노르딕워킹과 해초 비누 만들기 등을 체험(사전 예약)할 수 있다. 88코스는 완도대교를 지나 원동터미널에서 마무리 된다.

두루누비 어플을 설치한 후 완도 남파랑길 3개 코스 중 한 코스만 다 걸어도 완도 특산품인 미역, 다시마를 받을 수 있다.



완도 남파랑길 87코스 중 구계등 가는 숲길에서 바라본 바다 전경.

완도군 관계자는 “완도의 남파랑길 코스는 청정 바다와 푸른 난대 숲의 풍경을 만끽할 수 있어 힐링하기에 그만이다”면서 “트레킹하며 완도의 특산품도 받을 수 있는 남파랑길을 꼭 한번 둘러보시길 추천한다”며 “남파랑길을 걷기 전 스마트폰에서

두루누비 어플 다운로드 필수. 코스 안내판의 방문 QR코드를 인증하면 스탬프가 날인되며, 따라가기를 누른 뒤 걸기를 시작하면 길을 안내해준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장성군 브랜드 쌀 육성 박차 소비자 시식회 만족도 높아 20ha 규모 시범 재배 시작

장성군이 도입 준비 중인 브랜드 쌀에 소비자들이 높은 만족도를 보이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장성군은 최근 군청 백암홀, 광주과학기술원 제2학생회관 등에서 3회에 걸쳐 750여 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브랜드 쌀 시식회를 열었다.

시식에 쓰인 쌀은 중간찰 계통으로, 장성군이 전국 최초로 재배를 시도하는 품종이다. 시식회 후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소비자들은 5점 만점에 4.4점을 매겨 전반적으로 높은 점수를 줬다.

특히 ‘밥맛 만족도’와 ‘구매 의향’ 항목이 높게 나왔다. 만족도를 묻는 설문에선 5점과 4점을 준 응답자가 90%에 달했으며, 시식회에 참여한 360명의 광주 소비자 가운데 대다수인 331명이 ‘구매 의향 있다’고 답했다.

시식회에서 호평을 받은 만큼, 장성군은 올해 시범 재배에 박차를 가해 대표 브랜드 쌀로 육성해 갈 방침이다.

군은 올해 20ha 규모 계약재배 단지 조성을 시작으로 브랜드 쌀 육성을 본격화한다. 5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해 ▲참여농가 장려금 지급 ▲현장 기술 실증 ▲쌀 성분 분석기 구입 ▲샘플 쌀 및 포장재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추후 내이밍 등 브랜드 이미지 확립을 위한 용역도 추진한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좋은 밥맛을 가진 프리미엄 쌀을 우리 군 대표 브랜드로 육성해 농가 소득과 장성 쌀의 가치를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신안군 전기차 충전소 확충 섬지역 14기 추가 구축 완료

신안군 관내에 전기차 충전소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신안군에 따르면 지난 4월 군과 LG헬로비전은 환경부 주관으로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공모한 ‘2022년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에 선정, 국비와 민간자본을 확보하여 충전소가 없는 섬지역에 충전소를 설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신안군은 LG헬로비전과 협약을 통해 전기차 100kW급 급속 충전소 14기를 12월 구축 완료했다. 이 충전소는 내년 1월부터 충전이 가능하며 주요 설치지역은 비금, 도초, 흑산, 하의, 신의, 장산 등 전기충전소가 없던 도서지역으로, 이는 늘어나는 충전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전기차 보급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신안군은 지난 2020년 광주은행과 ‘환경친화적 전자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전기차를 구매하는 군민에게 용자금(최대 3000만원) 이자를 지원해 전기차 구매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도 추진해오고 있다.

신안군은 전기차 등 친환경차 적극적인 보급 확대를 위해 작은섬의 경우자를 친환경 자동차로 전환 시 보조금 20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광양시 고교생 ‘조르주 루오 전’ 관람 지원

지역 8개 고등학교 1717명

1인당 관람료 6000원씩

광양시가 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전남 도립미술관에서 개최하는 ‘인간의 고귀함을 지키 화가, 조르주 루오 전’ 관람을 지원한다.

‘조르주 루오 전’은 국내에서 13년 만에 선보이는 특별전으로, 지방도시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전시회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세계대전의 대환란 속에서 훼손된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이를 예술로 승화시킨 현대미술의 거장 조르주 루오(1871~1958)의 대규모 회고전과 함께 한국 근현대 작가들의 작품세계를 살펴보는 ‘조르주 루오와 한국미술, 시선 공명’을 개최하고 있다.

특히 조르주 루오의 예술정신과 화풍에 영향을 받은 국내 작가 22명, 50여 점의 작품도

구성돼 미술관 개관 이래 해외 명화와 한국미술을 연결 짓는 첫 시도의 전시로, 오는 29일까지 전시된다.

지원대상은 지역 내 고등학생 1~3학년 및 교직원으로 전시회 관람을 신청한 총 8개교 1717명에 대해 단체관람 시 학생은 1인당 6000원, 교직원은 1만 2000원의 관람료를 지원한다.

시는 지역 학생들이 세계적인 미술가의 작품을 직접 체험하고 감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판단해 시 교육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지원한다.

이화연 광양시 교육보육과장은 “지방도시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세계적인 화가의 작품을 감상하게 되어 학업에 지친 학생들에게 휴식을 제공하고 지역 예술문화에 대한 관심도 확대되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세계모란공원 유리온실 내에 개화한 모란.

강진세계모란공원 ‘봄 전령사’ 모란꽃 활짝

유리온실 만들어 사계절 감상

강진군 세계모란공원 유리온실에 모란꽃봉오리가 피어 올랐다.

강진군에 따르면 모란은 영양 상태, 외부 환경 등 모든 조건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고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올해 개화한 모란은 수량이 많고 시기도 각각 달라 2주 정도 모란을 감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모란꽃은 4월 하순경 개화에 닷새만에 꽃잎이 떨어지는 봄꽃으로, 김영량 시인 생가 주변에 피는 홍자색 모란꽃도 봄에만 만날 수 있다.

강진군은 봄에 잠깐 피고 지는 모란꽃에 대한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지난 2017년 영광생가 뒤편에 세계모란공원을 조성하고 사계절 모란꽃을 피우는 유리온실을 만들었다. 중국, 일본,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 세계 각국의 모란을 심고, 사계절 모란을 피울 수 있는 기술을 축적해가고 있다.

공원에는 인공 폭포와 야간 조명을 설치해 밤에도 산책을 즐길 수 있으며, 강진군의 대표적인 인물을 주제로한 시극 공연이 열리는 등 군민의 아름다운 꽃밭이자 문화 여가 생활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화순 복숭아·블루베리·복숭아 등 5대 특화작목 육성

화순군이 복숭아와 블루베리 등 지역 5대 특화작목을 집중 육성한다.

화순군은 2일부터 31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재배 희망농가와 재배농가 신청을 받는다.

화순군은 민선 8기 들어 ▲사인머스켓 ▲공 ▲복숭아 ▲토마토 ▲블루베리 등 5종을 지역특화작목으로 선정하고 예비사업자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참여 희망 농가를 모집해 본격적인 특화작목 육성에 나설 방침이다.

사인머스켓 작목은 농주면 선별장을 기준으로 반경 20km 이내 농가에 대해 10ha를 수출단지 지정할 예정이다.

공 작목에 대해서는 천운농협·화순농협·농주농협에 계약출하 한 농가를 대상으로 1kg당 1000원의 공 생산비를 지원한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

경매입찰, 강추 도초섬 내 임야, 1월 9일 입찰
낙찰시 100억 가치 있음
단독, 공동입찰 하실 분. 오천경매. 010-3605-5000